

국힘, 오늘 2강 압축... 한덕수 대선 출마 초읽기

한 대행 사퇴 시점, 이번 주말 유력...내일까지 내·외부 일정 소화
국힘과 단일화 방식 관심...김·홍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 거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권한 대행이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발 빅텐트' 초석이 될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힘 오늘 후보 2명으로 압축=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29일 발표된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중 누가 최종 경선에 올라가고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에 따라 한 대행과의 단일화뿐 아니라 향후 분선 경쟁 구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한 대행이 내달 초 공직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9일 당 후보가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 가능성이 작게 점쳐지면서 한 대행의 출마 선언도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다음 달 3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조만간 사퇴할 수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초 대행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는 국무회의의 주재를 포함해 예정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조만간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을 굳힌 뒤 정치권 원로이자 경기도·서울대 선배로서 막역하게 지내온 정 회장을 만나 향후 행보를 상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위원 간담회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방식에도 관심 집중=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상수처럼 여겨지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단일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로 쏠리고 있다.

우선 단일화에 적극적인 김·홍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가 된다면 단일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김·홍 후보는 단일화 방식으로 2002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거론하고 있다.

김 후보는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를 보면 여론조사로, 소위 말하는 원샷 경선을 했다. 그런 신속하고도 이의제기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당 후보가 되고도 당 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고 말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성사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당 출신을 비롯한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빅텐트 구성 논의 역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반면, 안 후보와 한 후보는 김·홍 후보와 비교하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한 대행이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출마할 경우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를 넣고 한쪽에 우리 후보를 넣어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군공항 이전 위해 국비 확대·특별법 개정”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공동 인터뷰 - 국민의힘 안철수

광주 AI·전남 에너지 산업 주력

‘반 이재명’ 위한 빅텐트 열려있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 특별법 개정, 이전지 개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지역 공약 등을 공개했다. 또 AI국가산단을 조기 완공하며 2단계로 확대와 그린에너지 벨트 조성 등의 공약도 소개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의 일문일답.

- 광주군공항문제 등 전국 군공항문제 해법은.

▲사실 전국의 군공항은 시대가 변하면서 도시 발전 계획과 상충되고, 주민의 피해도 크다. 하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군공항 입지에 관한 연구 영역으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 아울러 이전이 결정되면 국비 지원 확대, 특별법 개정, 이전지 개발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고민하겠다.

-지역 핵심사업 관련 공약은.

▲광주에 AI·첨단기술 융복합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AI국가산단을 조기 완공하며 2단계로 확대하겠다. 전남은 신안·영광·고흥을 중심으로 해상 풍력·태양광 기반 ‘그린에너지 벨트’를 조성하여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기지로 육성하겠다.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여수·광양은 친환경 정유 화학 및 수소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

-대선에 4번째 도전이다. 출마의 각오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절박한 선택이다.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국정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시대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정상화

와 AI강국, 개헌,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5대 개혁을 이뤄내겠다.

-당내 경쟁이 치열한데 전략은.

▲국민과 당원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믿어주시길 것이다. 결국 헌법 가치를 수호한 후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후보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후보는 전형적인 정치 ‘꾼’이다. 기본 소득, 현금살포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공권력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제거에 이용할 것이다. 도덕성, 정책 전문성, 미래비전 등 국가 지도자의 기본 자질면에서 안철수가 이재명을 압도한다.

-탄핵 찬성론에 따른 보수층의 이탈 우려가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우리 당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헌법을 수호하는데 앞장 선 사람이다. 제 진심을 당원께 설명드리고 지지를 호소하겠다.

-여권에서 논의되는 ‘빅텐트’에 대한 견해는.

▲그것은 제가 집권 가능성이 낮은 제3당에 있을 때의 일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당의 틀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는 시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저를 희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한 대행이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이 원하는 ‘이재명 대 윤석열 프레임’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겠다면 이재명을 막기 위한 빅텐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만의 전략은.

▲이제 과학기술 없이 경제, 안보, 외교를 논할 수 없다. 시대가 과학자, 경제인 출신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국민통합, AI강국이라는 대의를 바탕



으로 새로운 ‘안철수 신드롬’을 만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강단 있는 성품으로 국민의 부름을 받았지만, 정치 초보이자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의 본질인 협치, 타협을 간과했다. 소통과 정부주 감각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

-국민통합 방안은.

▲시대변화에 걸맞는 국민통합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 분권형 개헌, 국회 입법권 남용 견제 장치 마련, 국민 기본권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지역과 세대, 이념을 아우르는 통합의 절차를 실현할 것이다.

-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주요 공약은.

▲지금 초격차기술, 미래먹거리 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을 펼치겠다.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컨텐츠·서비스 산업 등 5대 미래 초격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공공 등 5대 분야의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새미래’ 이낙연, 대선 출마

이번주 공식 선언...한덕수와 단일화 질문에 “뜻 같으면 협력”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6·3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상임고문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후보 등록을 위한 실무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며 “당연히 출마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세 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미래민주당은 이날 당을 대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품격, 미래 비전, 위기관리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준비를 국민, 당원과 함께 착실히,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